

『입심기(入瀋記)』 소재 신시(驢詩) 연구

채 우 잠*

차 례

1. 머리말	1) 적임자 발탁에 대한 칭송과 사행
2. 『入瀋記』 소재 ‘驢詩’의 창작 배경	참여의 자부심
1) 『入瀋記』의 사행 연대와 작가의 변정	2) 대명의리의 존송과 배척의식의 표출
2) 성절겸심양문안사의 파견과 대를 이은 사행 참여의 축하	3) 壯遊의 실현과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
3. 『入瀋記』 소재 驢詩의 내용상 특징	4)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한 걱정과 무사귀환의 회구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후기의 연행록인 『입심기(入瀋記)』에 수록된 신시(驢詩)의 창작배경과 내용상의 특징을 살핀 것이다.

먼저, 『입심기』의 창작배경이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혼선을 빚었던, 『입심기』가 산출될 수 있었던 저자와 사행연대를 살폈다. 『입심기』는 1723년 사행에 참여한 李宜萬의 기록이 아니라 1783년 사행에 참여한 정사 李福源의 둘째 아들인 李晩秀와 조카인 李田秀가 기록한 사행록이 되 주저자는 이전수였다. 둘째, 驢詩의 창작배경을 살폈다. 조선은 건륭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황제의 심양 유람과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을 심양에 파견하였는데, 이복원이 정사에 선발되고 둘째 아들인 이만수와 조카인 이전수도 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연안 이씨 집안은 대대로 중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사행길에 올랐는데, 1783년에 다시 성절겸심양문안사 정사가 탄생하고 임금에게 驢詩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정조가 내린 驢詩에 세 사신과 함께 이학원·이전수가 和韻詩를 짓고, 친지들도 그들을 위해 송별시문을 남기게 된 결과 「御製驢詩」와 「親朋驢詩」가 탄생하게 되었다.

다음은 『입심기』의 내용상의 특징이다. 첫째, 적임자 발탁에 대한 칭송과 사행 참여의 자부심이다. 정조는 신사에서 중요한 외교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는 자신의 생각을 잘 아는 이복원 뿐이라며 최고의 신뢰를 보였다. 자제군관으로 참여한 이만수·이전수도 송별객으로부터 뛰어난 학식과 文才로 사행의 적임자로 칭송을 받았다. 둘째, 대명여리의 존숭과 배청의식의 표출이다. 심양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왕세자는 물론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산 고통의 공간이었기에 정조를 비롯한 송별객들은 한결같이 숭명배청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 壯遊의 실현과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이다. ‘壯遊’는 당시 선비라면 누구나 꿈꾸는 소망으로, 송별객들은 이전수, 이만수 두형제가 사행을 통해 장유를 이루고 자신의 능력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넷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한 걱정과 무사귀환의 회구이다. 1783년 성절겸심양문사행은 보통 때와 달리 한참 더운 음력 6월로 정조를 비롯한 송별객들의 시문에는 이들이 더위를 잘 견딘 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주제어: 연행록, 심양, 송별시문, 입심기, 시문창화

1. 머리말

동아시아에는 예로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조공국이 둘러싸고, 그 조공국들도 서로 우호친선과 문화교류를 통해 교린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국제질서가 존재하였다.¹⁾ 이른바 事大交隣의 외교정책이다. 그 가운데 조선 역시 중국에는 사대 관계를, 일본을 비롯한 주변 이웃 나라에는 교린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매년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곧 정기적인 사신행차(이하 ‘사행’)인 ‘節行’과 부정기적인 사행인 ‘別行’이 그것이다.²⁾ 절행으로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聖節使, 새해를 축하하는 正旦使,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는 千秋使 등이, 별행으로는 황제의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謝恩使, 황후·황태자의 책봉이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進賀使, 황제·황태자의 죽음을 조문하는 進慰使 등이 있었다.

조선 조정의 중국 사행은 대륙의 패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옮겨진 뒤에도 이어졌다. 비록 청나라가 절행을 冬至行으로 단일화시키는 등 사행의 간소화를 추진하긴 했지만, 이전에 못지않게 수많은 조선의 사행원들이 중국 사행길에 올랐다. 총 3,100리, 약 5개월에 걸친 멀고도 긴 기간의 외국사행은 흔치 않은 경험으로, 文識을 갖춘 사행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체험을 일기와 시 등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燕行錄’이 산출되었고, 연행록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도 ‘연구총서’가 엮어질 정도로 방대하게 이루어졌다.³⁾

연행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사행길에 오른 뒤의 견문과 소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행을 앞두고 배풀어진 송별의 자리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자신에게 바친 시문인 ‘瞻章’을 수록한 경우도 더러 보인다.

1) 백종기, 「사대 교린외교의 지정학적 및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 10,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90쪽.

2) 서인범, 『연행사의 길을 가다』, 한길사, 2014, 33-34쪽.

3) 조규익·이성훈·전일우·정영문 편저, 『(eBook) 연행록 연구총서』, 학고방, 2019.

이들 ‘신장’은 사행에 참여한 당사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연행록 연구에서 소외되었다. 하지만, 사행원에 대한 작가의 감정과 함께 사행 대상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행사행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다행히 조선시대 ‘연행’과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한 ‘통신사행’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송별 때의 시와 문장을 합친 ‘驢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⁴⁾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8세기 연행록인 『入瀋記』 속에 수록된 ‘驢詩’의 창작배경과 내용상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입심기』는 한국과 중국의 ‘연행록전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기중 편 『燕行錄全集』 권30에 수록된 『입심기』를 연구 텍스트로 삼기로 한다.⁵⁾

2. 『入瀋記』 소재 ‘驢詩’의 창작 배경

1) 『入瀋記』의 사행 연대와 작가의 변정

『입심기』 소재 ‘신시’의 창작배경을 살피기 전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연구 텍스트인 『입심기』가 산출된 정확한 사행 연대 및 저자

4)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의 驢章 연구-「遼窩府院君日本使行時驢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283-308쪽.

5) 임기중 편, 『燕行錄全集』, 권30,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弘華文 편, 『燕行錄全編』, 제2집,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2.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에 수록된 『입심기』는 李福源의 서자 李旭秀·李耆秀 형제가 『家山全書』 「農隱遺稿」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영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입심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張傑, 『韓國史料三種與盛京滿族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9.; 韓梅, 「韓國古代文人眼中的中國-『朝天錄』, 『朝京日錄』, 『入瀋記』爲中心, 『東岳論叢』 9호, 文學研究, 2010.; 朱玉, 「朝鮮文獻 入瀋記 研究」, 遼寧大學 歷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10.; 韓梅, 「〈入瀋記〉에 나타난 淸人 형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9집, 한중인문학회, 2013.

의 辨正이다.

『입심기』는 한문으로 된 일기체 연행록으로, 「상」·「중」·「하」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行中座目’·‘凡例’·‘日記’를 수록하고 있다. ‘행중좌목’은 ‘聖節兼問安使 正使’로부터 양산을 들고 가는 ‘郭山의 노비’까지 사절단의 인원과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범례’는 『입심기』의 내용 및 서술방식을 6개 항목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고, ‘일기’는 계묘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선에서 심양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날짜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권은 상권에 이어 심양에 머물 때와 귀국의 과정을 담은 8월 23일~10월 10일까지의 일기를 담고 있다. 하권은 크게 ‘農隱遺稿’와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은유고’는 작가가 중국 사행에서 견문하고 느낀 바를 궁실·의복·器具·음식·財貨·鳥獸·언어·雜俗 등 8개 항목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부록’은 ‘御製贐詩’·‘親朋贐詩’·‘沿道賦咏’·‘德符心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제신시’에는 정조가 사행을 떠나는 사신에게 내린 시와 이에 차운한 사신과 친지의 시 6수가, ‘친봉신시’에는 친척과 지인들이 사행원에게 내린 시 21수와 편지글 등 문 4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연도부영’에는 사행 도중의 감회를 읊은 시 154수와 문 3편이, ‘덕부심구’에는 청의 한림학사 彭元瑞가 건륭황제의 고회를 맞아 바친 찬시 <古稀頌九章>과 건륭황제가 이를 보고 칭찬만 있을 뿐 경계가 빠졌다면 스스로 경계하는 내용을 담아 쓴 <古稀說>⁶⁾ 및 호부상서 梁國治가 이들 각각의 작품을 위해 지은 <古稀送九章序>와 <古稀說跋文> 2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입심기』가 산출될 수 있었던 저자와 사행연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연행록전집』 권30에 처음으로 『입심기』를 소

6) 이는 건륭황제가 사신을 심양까지 보내 준 정성과 공경을 아름답게 여겨 御製詩 1장과 함께 정조에게 하사한 것이다. 『정조실록』 권17, 정조 8년 2월 17일, “今歲秋間 朝鮮國王因朕臨行盛京 特遣陪臣 迎鑾祝壽 誠敬可嘉 是以加恩賞賚 並賜扁額詩章及古稀說 令該國王接奉後”.

개한 임기중이 ‘차례’에서 姜錕의 『看羊錄』, 俞得一의 『燕行日記抄』와 함께 별다른 설명 없이 『입심기』를 『農隱入瀋記』라 적고 저자를 ‘李宜萬(1650~1736)’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라고 밝힌 李宜萬의 존재는 문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1882년 식년문과에 3등으로 합격한 李文善의 조부로만 등장할 뿐이기에 생몰연대를 명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실마리는 실록 등에 ‘李宜晚’이란 다른 인물이 존재하는 데서 풀리기 시작한다. 이의만은 본관이 광주이고 자가 善應, 호가 農隱, 시호가 靖貞으로 충정공 李浚慶의 5대손이다. 1679년에 생원이 되고, 1691년 증광문과에서 을과 2위로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 사간원정언·통덕랑·함경도관찰사·한성부판윤 등을 지낸 인물로 생몰연대가 ‘李宜萬’과 같다.⁷⁾ 본문의 표제가 한국과 중국 모두 『입심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기중이 ‘차례’에 『농은입심기』라 적은 것은 하권에 『농은유고』가 수록되어 있고, 李宜晚의 호가 ‘농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李宜萬’은 ‘李宜晚’의 誤記로 보는 것이 옳다.

다음은 사행연대이다. 임기중이 기록한 이의만의 생몰연대와 「일기」에 부기된 ‘自癸卯六月十三日始 八月二十二日止’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입심기』의 사행 연대는 1723년이 되며, 이를 그대로 수용한 연구도 존재한다.⁸⁾ 문제는 이의만이 연행을 간 적도 없을뿐더러 1723년 조선에서 파견한 연행사는 4차례였지만 목적지가 심양이 아닌 북경이었다는 점이다.⁹⁾ 그렇다면 결국 『입심기』의 저자는 이의만이 될 수 없고, 사행연도도 1723년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입심기』의 저자와 사행연대는 편자인 임기중의 견해보다 『입심기』의 내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7) 『國朝文科榜目』 권13 참조.

8) 김현미는 『입심기』의 사행연대와 작가를 1723년 연행사와 이의만으로 수용하고 있다.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95쪽.

9) 1월에 ‘陳慰兼進香使’가, 4월에 ‘進賀使’, 8월에 ‘陳慰兼進香使’, 10월에 ‘進賀謝恩兼三節年貢使’가 파견되었다.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20쪽, ‘역대 연행사 일람표’ 참조.

다행히 「行中座目」에는 세 사신을 ‘聖節兼問安正使李 副使吳載純 書狀尹嘯’이라 명확히 적고 있다. 성씨만 있고 이름은 없는 정사에 비해 부사와 서장관의 성명은 ‘李福源을 성절 및 심양문안 정사로, 吳載純을 부사로, 尹嘯을 서장관으로 삼았다.’¹⁰⁾는 『정조실록』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사행은 계묘년(1783)에 이루어진 것으로, ‘正使李’는 좌의정 李福源을 일컫는 것으로, 이름을 嘯 것으로 보아 작가는 그의 자손일 가능성이 크다. 작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도 『입심기』에 보인다.

(가) 정조 임금 8년 4월 큰아버지께서 심양문안사의 명을 받아 6월 13일에 사행길을 올랐다. 나와 둘째형은 고양에서 40리쯤에 있는 숙소까지 모시고 따랐다.¹¹⁾

(나) 이 책의 원고는 원래 『西遊記』와 『萬泉錄』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 『서유기』는 내가 직접 쓴 것으로, 강을 건넌 후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 『만천록』은 형님이 작성한 것으로 張裕昆을 만난 이후의 교류와 대화를 적은 것이다.¹²⁾

(가)에서는 작가가 사행에 참여한 정사인 이복원의 조카임을, (나)에서는 『입심기』가 조카가 쓴 『서유기』와 조카의 형이 쓴 『만천록』을 합친 것임을 보여준다. 「행중좌목」에 의하면 이복원이 사행에 데리고 간 것으로 짐작되는 인물은 정사 소속의 ‘進士 李晩秀’와 ‘伴尙閑良 李田秀’밖에 없다. 자 綏之, 호 雙溪, 시호 文靖인 이복원(1719~1792)은 예조판서를 역임한 李喆輔의 아들이다. 이철보는 자가 保叔, 호가 止庵으로 슬하에 福源과 學源을 두었는데, 학원은 1792년 34세의 나이로 목릉 참봉으로 벼슬길에 올라 공조좌랑(1795), 창녕현감(1797), 청도군수(1799)를 지냈다.

10) 『정조실록』 권15, 정조 7년(1783) 4월 1일, “李福源爲聖節及瀋陽問安正使 吳載純爲副使 尹嘯爲書狀官”.

11) 『入瀋記』上, 「日記」, “上之八年四月 伯父承瀋陽問安使之命 以六月十三日癸酉發程 吾與仲兄陪行高陽四十里宿所”.

12) 『入瀋記』上, 「凡例」, “是書草稿 元有西遊記萬泉錄二種 西遊記乃吾所草也 自渡江後記日用凡事 萬泉錄乃仲兄所草也 自逢張裕昆後記往來酬酢者”.

이복원은 슬하에 時秀·晚秀·旭秀·耆秀를 두었고, 이학원은 載秀(『萬家譜』에는 魯秀)·田秀를 두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입심기』는 1783년 사행에 참여한 이복원의 둘째 아들 이만수와 조카인 이전수에 의해 공동기록된 사행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중·하권에 모두 참여한 중심 작가는 이전수이고, 이만수는 (나)에서 보듯 중권 가운데 심양의 문사인 萬泉居士 張裕昆과의 교류 기록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 작가인 이전수(1759~1802)는 자가 君稷, 호가 農隱으로 徐命敏의 첫째 딸과 결혼한 후 1786년 진사시에 3등으로 합격하였다. 창녕군수·목릉참봉 등을 역임했고, 전고에 밝아 1781년 徐滢修가 『保晚齋叢書』를 편찬할 때 박지원·서유구·이덕무 등과 협조하기도 하였다.¹³⁾ 그리고 자 成仲, 호 屐擁·屐園, 시호 文獻인 이만수(1752~1820)는 1789년 문과 급제 후 호조판서·평안도관찰사·대제학 등을 역임하였으며 『屐園遺稿』를 남기기도 했다.¹⁴⁾

2) 성절겸심양문안사의 파견과 대를 이은 사행 참여의 축하

1783년 청의 6대 황제인 건륭황제(1735~1796)가 73세의 나이에 북경을 떠나 祖陵이 있는 동쪽의 심양을 방문하는 ‘東巡’을 진행하였다. 효심이 짙었던 그는 이미 3차례(1743·1754·1778)나 심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6월 23일 청나라 황실의 여름별장인 圓明園을 출발한 황제는 熱河의 피서산장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생일(8월 13일)도 맞이하였다. 이후 8월 16일에 피서산장을 출발한 황제는 新賓¹⁵⁾에 위치한 청 황실의 祖陵인 永陵을 거쳐 9월 17일에 마침내 심양에 도착하였다.¹⁶⁾

13) 徐滢修, 『明臯全集』, 「附錄」, <年譜>.

14) 이도훈, 「屐園 李晚秀의 生涯와 散文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5) 원래는 고구려 땅으로 오늘날 중국 遼寧省 북쪽에 위치한 撫順市 관할 하에 있는 현으로 옛날에는 ‘興京’으로 불리기도 했다.

16) 『清實錄』, 『高宗純皇帝實錄』 권15, “將次啓鑾 前往熱河 秋間即由熱河至盛京 恭謁祖陵”.

한편 건륭황제의 심양 방문 소식을 접한 조선 조정은 건륭황제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을 심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1일 성절검문안사로 선발된 세 사신은 앞서 살폈듯이 정사 이복원, 부사 오재순, 서장관 윤확이었다. 6월 13일 사행길에 오른 이들은 7월 30일 심양에 도착, 8월 13일 大政殿에서 聖節望賀禮를 거행한 후 9월 5일 老邊城卡倫門 밖에서 황제를 알현하였고, 9월 20일에는 盛京宮 崇政殿에서 베풀어지는 陳賀禮에 참석한 후 10월 10일에 복명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⁷⁾

근대적 교통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외국으로의 사행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일찍이 김창협·김창흡 두 형제가 천하의 여러 일들과 도를 논할 수 있는 장부의 덕목으로 손꼽은 것이 ‘높은 의기’와 ‘넓은 견문’이었다.¹⁸⁾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중국으로의 여행’이었을 정도로 중국 사행 참여는 오늘날의 수학여행처럼 조선조 문인지식층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런데 이복원이 정사에 선발된 데다, 둘째 아들인 이만수와 조카인 이전수 등 한 집안에 무려 3명이나 중국 사행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연안 이씨는 다른 가문보다 중국과 인연이 깊었다.

저의 조상은 본래 중국인이었습니다. 시조는 당나라의 중랑장으로, 소정방을 따라 백제를 평정하고 연안백에 봉해졌으며, 후손들은 여전히 연안을 본관으로 삼고 있습니다.¹⁹⁾

이전수가 심양에서 만난 청나라 문인 張裕昆에게 자신의 뿌리를 소개

17)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1783) 9월 13일, “瀋陽問安使李福源等 在瀋陽馳啓曰 臣等七月三十日到瀋陽 八月十三日詣大政殿 行聖節望賀禮…(九月初五日)祇迎於老邊城 卡倫門外”; 10월 10일, “召見回還瀋陽問安正使李福源”.

18)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5, 「淸脾錄」 4, <農巖三淵慕中國>, “農巖先生詩 未見秦皇萬里城 男兒意氣負崢嶸…三淵先生詩…人生不可小所見 大目方令胸肚擴”.

19)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30, 「농암입심기」 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201쪽, “僕之祖先本是中國人 始祖唐中郎將 從蘇定方平百濟 封延安伯 子孫仍籍焉”.

하고 있는 장면이다. 연안 이씨의 시조 李茂는 660년(무열왕 7년) 당나라의 소정방이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을 때의 중랑장으로 참전하였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당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신라에게 귀화한 인물이다. 태종무열왕이 그를 延安伯에 봉했기 때문에 후손들은 연안을 본관으로 삼았다. 1783년 사행에 참여한 이복원과 이만수·이전수 형제들은 바로 연안 이씨 후손들이다.

게다가 연안 이씨는 문단과 정계에서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가였다. 『고려사』 편찬에 참여한 李石亨(1415~1477)을 비롯하여 그의 玄孫으로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인 李廷龜(1564~1635)가 대표적이다. 이정구는 중국어에도 능통하여 5차례(1597·1598·1604·1616·1619)나 중국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이정구의 4대손이자 이전수·이만수의 조부인 李喆輔(1691~1770)도 2차례(1737·1747)나 연행을 다녀온 데다 사행록인 『燕槎錄』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연안 이씨 집안은 오래 전 조상 때부터 중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후손들도 대를 이어 중국 사행길에 올랐을 정도로 ‘중국통 집안’이었다.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한 연안 이씨 집안에서 1783년에 다시 성절겸심양문안사 정사가 탄생하고 두 명의 후손이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된 데다, 임금의 驢詩까지 하사받았으니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연스레 정조가 내린 驢詩에 세 사신과 함께 이학원·이전수가 시를 짓고, 친지들도 장도에 오르는 그들을 위해 송별시문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입심기』 소재 「御製驢詩」와 「親朋驢詩」가 탄생할 수 있었다.

3. 『入瀋記』 소재 驢詩의 내용상 특징

驢詩는 송별시의 일종이다. 송별시는 이별의 감정을 표현한 시이며,

이는 送別・贈別・餞別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송별시의 전통은 이미 『시경』에서 보인다. 「邶風」・〈燕燕〉은 누이동생이 남쪽나라로 시집 갈 때, 위나라 제후인 그의 오빠가 누이를 전송한 시이고, 「小雅」・〈皇皇者華〉는 황제가 사신을 보낼 때 부른 송별시이며, 「秦風」・〈渭陽〉은 외삼촌을 송별한 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깊은 정을 드러낸 시이다. 이밖에도 『시경』에는 친척간의 송별, 관리사회에서의 송별, 전쟁으로 인한 이별 등 송별을 제재로 한 다양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²⁰⁾

『入審記』에는 앞서 밝혔듯이 정조임금이 사신에게 하사한 송별시와 이에 대해 사신과 작가 및 작가의 부친이 차운한 시를 담은 ‘御製贐詩’, 사행을 떠나기 전 가족과 친지들이 남긴 송별시문을 담은 ‘親朋贐詩’가 수록되어 전한다. ‘御製贐詩’는 특성상 화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親朋贐詩’는 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비고’는 『입심기』의 내용을 토대로 이전수와의 관계를 살핀 것이다.)

<도표 1> 『入審記』 소재 贐詩의 현황

구분 출처	제목	형식	작가	수신자	비고	구분 출처	제목	형식	작가	수신자	비고
御製贐詩	御製詩	七言律詩	正祖	李福源		親朋贐詩	贈別成仲	五言絕句	李時秀	李晚秀	從兄
	廣韻	七言律詩	李福源	正祖	伯父		奉別書巢從兄北遊瀋陽	五言絕句	李洛秀	李晚秀	從弟
		七言律詩	李學源	正祖	父		敬呈仲氏瀋陽之行	七言律詩	李旭秀	李晚秀	庶從弟
		七言律詩	李田秀	正祖	吾		又呈從兄	七言律詩	李旭秀	李田秀	庶從弟
		七言律詩	尹嘯	正祖	書狀官		無題	七言律詩	敬叔	李田秀 李晚秀	親知
	七言律詩	柳燦	正祖	前察訪			內弟成仲君稷作瀋陽行詩以別之	七言絕句	仲儼 ²¹⁾	李田秀 李晚秀	妹兄

20) 강창구, 「이백 송별시의 기능고」, 인문학연구 48,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126쪽.

구분 출처	제목	형식	작가	수신자	비고	구분 출처	제목	형식	작가	수신자	비고
親朋贈詩	送君櫻北 遊序	文	碧嘯歌 人	李田秀	八寸兄		臚內從成仲 君櫻瀋陽之 行	七言律詩	公瑞	李田秀 李晚秀	姑從兄弟
	李友君櫻 赴瀋陽寄 詩求臚語 以小序答	文	金和南	李田秀	友		敬呈內兄瀋 陽行軒	七言律詩	汝三	李田秀 李晚秀	外從弟
	申監役書	文	申大羽	李田秀 李晚秀	外從弟		送成仲君櫻 陪大爺相公 瀋陽使行	五言古詩	持世	李田秀 李晚秀	親知
	李子餘書	文	李勉求	李田秀 李晚秀	從弟		無題	七言律詩	以興	李田秀 李晚秀	親知
	贈別成仲	五言絕句	洛老 ²²⁾	李晚秀	再從弟						

1) 적임자 발탁에 대한 칭송과 사행 참여의 자부심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외교는 전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자 사이의 외교문서인 ‘국서’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국서를 전하는 역할은 오롯이 사신이 맡았다. 사신은 국가 최고 통치자의 명령으로 상대국의 최고 통치자에게 국서를 전하는 만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역할도 겸하였다. 『논어』에 “시 300편을 다 외워도 정사를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專對하지 못하면 많이 외운들 어디에 쓰겠는가?”라는²³⁾ 말이 있듯이, 이국땅에서 적절하게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사신의 선발은 매우 중요했고 엄격했다.

21) ‘仲儼’은 詩題에 두 형제를 ‘손아래 처남’인 ‘內弟’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매형’으로 보았다.

22) ‘洛老’는 이전수의 아버지인 이학원의 사촌형제인 李文源의 아들 在秀·存秀·友秀의 字가 新老·性老·仁老이고 생년도 이전수에 비해 어리므로 再從弟로 보았다. 자나 호로 기록되어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인물들을 이후의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3) 『論語』 권13, 「子路」,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중국 사행의 경우 대표적으로 ‘동지사’의 정사는 정2품, 부사는 정3품, 서장관은 정5품 관리 가운데 선발하였고, 문안사의 정사는 정1품의 宗班과 儀賓 중에서, 서장관은 3·4품 관리 중에서 선발하였다.²⁴⁾ 이들은 崇文主義를 지향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상대국 최고 통치자의 알현 및 문인·관리 등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작시 능력까지 갖추어야 했다. 이는 수행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인문적 교양을 갖춘 조선의 문인지식인들이 선발되어 이들을 따랐다.²⁵⁾

『入瀋記』의 배경이 된 1783년 사행은 성절사와 심양문안사를 겸한 만금 보통의 문안사와 달리 부사도 참여하였는데, 이 사행을 대표하는 정사로 이복원이 선발된 것이다.

황제가 장차 이번 8월에 동쪽으로 유람하여 심양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관례에 따라 사신을 파견하여 영접해야 하오. 이에 우의정을 正使로 임명하였소. 그대는 나의 신뢰를 얻어 아침 저녁으로 국정을 보필하던 분이오, 그러나 경이 병약함을 알고 있으니, 내 어찌 무거운 임무를 맡기고 싶겠소? 다만 이번 외교적 임무는 오직 경만이 능히 할 수 있기에 그러하오.²⁶⁾

정조가 이복원에게 친히 송별시를 내리면서 덧붙인 글이다. 비록 65세의 고령으로 병약한 것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는 자신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이복원 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정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이자 칭찬이 아닐 수 없다.

24) 『通文館志』 권3, 「事大 上」, <赴京使行>, “冬至行 使一員(正二品結銜從一品) 副使一員(正三品結銜從二品) 書狀官一員(正五品結銜正四品)…問安行(皇帝巡到近境則差送) 使一員(品依謝恩使) 書狀官一員(三四品)”.

25) 실학박물관 편, 『燕行的 문화사』, 경인문화사, 2012, 4쪽.

26) 『入瀋記』下, 附錄, 「御製瞻詩」, “皇帝將以今八月 東游至瀋陽 我國例遣使迎候 乃以端揆充上价 輔相予所倚而朝夕也 卿且善病 予豈欲重勞之 顧以今之專對 非卿莫可也.”

이복원이 임금으로부터 정사의 책임자로 칭송을 받은 것처럼, 그를 따라 자제군관으로 참여한 이만수·이전수 또한 송별객으로부터 사행의 책임자로 칭송을 받는다.

듣건대 사신의 일 엄중하다 하니	嘗聞使事重
자문은 반드시 넓게 받아야 하네	咨諏必於周
따라가는 사람 중에 두 명의 뛰어난 인물이 있으니	從行有二妙
우리 상공께선 걱정할 일 없겠네	我公其無憂

- 持世, <送成仲君稷陪大爺相公瀋陽使行>

작가는 사신은 직무가 중하기에 당연히 주변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아들과 조카가 자제군관으로 곁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정사인 이복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통 자제(제자)군관은 삼사의 자제나 친척 중에서 선발되었다. 이들은 연로한 삼사의 곁에서 시문으로 慰撫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틈틈이 민간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⁷⁾ 다른 송별시문에서는 이전수를 ‘학문에 통달하고 이치를 꿰뚫은 자’로, 이만수를 ‘성리학에 순수한 유학자로 경제제민에 능통한’ 뛰어난 학식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²⁸⁾

게다가 두 형제는 시문에도 뛰어났다.

심양의 관료들과 조정의 현인들	瀋陽冠蓋廟堂賢
밤새도록 막부에 모여 惠連을 만나겠네	幕府晨昏又惠連
유서 깊은 가문에 준결이 많으니	自是古家多俊彦
긴 여정에 작은 만남이 이루어지겠네	仍成長路小團圓

- 公瑞, <驢內從成仲君稷瀋陽之行>

27) 윤경희, 「연행과 자제군관」, 『비평문학』 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47쪽.

28) 『入瀋記』下, 附錄, 「親朋驢詩」, <李友君稷赴瀋陽寄詩求驢語以小序答>, “又況以子之達學 而明理者乎”.

작가는 두 형제가 심양의 조정 관료들과 밤새도록 필담창화를 나누며 시문 창작능력을 뽐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그는 두 형제를 ‘惠連’에 빗대고 있다. 혜련은 중국 남조 송나라의 시인 謝惠連으로 어려서부터 시문 창작 능력이 뛰어나 산수시파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族兄 謝靈運과 함께 ‘大小謝’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²⁹⁾ 사행에 참여한 두 형제가 謝惠連·謝靈運 두 일가형제처럼 대단한 문재를 지녔기에 당연히 심양의 문사들을 상대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이 두 형제에 대한 자부심은 “요동 사람들이 만약 누구냐고 물으면 / 동쪽 나라 이씨 집안의 두 시인이라 하시게”³⁰⁾라는 시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송별시를 남긴 이들은 두 형제 역시 학문과 함께 시문창작 능력도 모두 갖추었기에 자제군관으로서 책임자라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2) 대명의리의 존송과 배청의식의 표출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청나라에 굴복했지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17세기에 등장한 청나라에 대한 ‘북벌론’과 18세기에 창덕궁에 세운 ‘大報壇’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보단은 명이 멸망한 지 60주년을 맞아 1704년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와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지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만력제 및 최후의 황제인 숭정제를 제사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으로, 당시 청나라와 외교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숙종은 ‘명에 대한 충절’과 청에 대한 불복의지를 담아 국가 차원에서 대보단의 조성을 추진해 완성했다. 이처럼 대명의리는 명이 위급할 때나 심지어 명이

29) 연세대 중국문학사전편역실, 『중국문학사전Ⅱ 작가편』, 다민, 1994, 158-160쪽, 170-171쪽.

30) 『入瀋記』下, 附錄, 『親朋瞻詩』, <內弟成仲君稷作瀋陽行詩以別之>, “遼人若問爲何者 東國騷人李二郎”.

멸망한 이후에도 명에 대한 사대를 의리로서 간주하고 지켜야 한다는 조선 지식인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³¹⁾, 그 표현은 오히려 은밀하고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행을 떠나는 이복원에게 정조가 내린 ‘御製驢詩’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³²⁾

예물이 평소엔 연경으로 들어갔는데	玉帛尋常入薊幽
허둥지둥 6월에 또 사신 행차 떠나네	棲棲六月又征輶
원웅태와 웅정필이 싸우던 곳엔 별궁이 장엄할 것이고	袁熊戰處離宮壯
요동의 학이 날아와서는 옛 성곽 생각에 슬퍼하겠네	遼鶴飛來故郭愁
고상한 태도는 의당 예의를 징협케 하려니와	雅度須教徵禮義
웅장한 시문은 응당 조잘대는 소리를 씻어버리리	雄詞應遣洗啁啾
중원의 인사들이 만일 서로 물어보거든	中原人士如相問
압록강은 변함없이 굽이굽이 흐른다 하시게나	鴨水依然萬折流

- 정조, <驢端揆李福源充上价赴瀋陽>³³⁾

1712년 사은겸동지사가 연경으로 떠날 때 숙종이 칠언절구의 송별시 <燕行時肅宗大王御製驢章> 2수를 내린 적이 있지만,³⁴⁾ 연행록에 임금의 송별시가 수록된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만큼 사행에 대한 정조의 관심이 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1783년 사행의 최종목적지가 瀋陽이란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양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왕세자는 물론 수십만의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 처참한 삶을 살아 조선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준, 삭제하고 싶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³⁵⁾

31) 허태구, 「정조대 대청 외교와 대명의리의 공존, 그 맥락과 의미」, 『지역과 역사』 47호, 부경역사연구소, 2020, 142쪽.

32) 『정조실록』, 권15, 정조 7년(1783) 6월 13일, “瀋陽問安正使李福源 副使吳載純 書狀官尹曠辭陛 上召見 賜福源御詩以勞之”.

33) 『入瀋記』에는 제목 없이 「御製驢詩」라고만 되어 있지만, 『弘齋全書』 권5, 「詩一」에는 ‘小序’와 함께 <驢端揆李福源充上价赴瀋陽>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전한다.

34) 金昌集, 『夢窩集』 권3, 「燕行壘簾錄」, <燕行時肅宗大王御製驢章>.

35) 박수밀, 「병자호란의 상흔과 청음 김상헌의 심양 억류 체험 고찰」, 『한국문학과

물론 1783년의 사행이 병자호란의 굴욕으로부터 150년이나 지나 파견되었고,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심양의 선진 문물과 시장의 변화함에 놀라는 장면이 있는 걸 보면,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反淸감정은 어느 정도 희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조가 내린 송별시에는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崇慕之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전반부에서는 명·청의 군대가 격돌한 전쟁터에 청나라 황제의 별궁이 들어서고, 요동의 학이 사라진 옛 성곽을 보며 슬퍼한다며 왕조가 바뀐 세상사의 변화를 애처롭게 표현한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고상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선의 예의를 알게 하고, 웅장한 시문으로 청의 문사들을 제압할 것을 이복원에게 주문한다. 나아가 비록 사대하는 왕조는 바뀌었지만, 대명의리는 여전함을 변함없이 흐르는 압록강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다.

정조의 대명의리는 이 시의 앞에 붙인 짧은 서문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병자호란 이래로 무릇 우리 상하 누군들 비통함과 수치를 꼭 참고 지내지 않았겠는가마는, 청나라가 우리를 후대하니 우리가 어찌 굳이 예의에 허물을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비록 그러하나 皇壇이 저기에 있으니, <匪風>과 <下泉>의 생각이야 어찌 차마 하루라도 마음속에 잊을 수 있겠는가?…반드시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말라.”³⁶⁾

조선이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청나라의 厚待에 대한 예의일 뿐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은 것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도 아님을 ‘皇壇’·<匪風>·<下泉>을 끌고 와 강변하고 있다. ‘황단’은 ‘大報壇’의 다른 이름이고, <匪風>·<下泉>은 각각 『詩經』의 「檜風」과 「曹風」에 수

예술』 31집, 한국문화과학예술연구소, 2019, 293-294쪽.

36) 『入瀋記』下, 附錄, 「御製瞻詩」, “涖瀾以來 凡我上下 孰不忍痛包羞 而彼待我厚 我豈必愆于禮乎…皇壇在彼 匪風下泉之思 寧忍一日忘于中也…須祕之勿宣也”.

록된 시들로 한결같이 주나라 왕업이 쇠망해가는 것을 한탄한 노래들이다. 정조는 마지막에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대명의리를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정조의 시에 대해 세 사신, 정사 소속의 柳燦, 이학원, 이시수, 이만수, 이진수 등이 남긴 차운시에도³⁷⁾ 대명의리와 배청의식은 드러난다. 이진수는 “남은 백성들 아직도 옛 의관제도에 감동하는데 / 옛 성벽에는 새들만 울고 있을 뿐”³⁸⁾이라며 왕조가 바뀐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중국의 복식에 주목한다. 중화의 상징이었던 의관이 청나라 통치자에 의해 강제로 胡服으로 바뀌고 선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발도 강요되고 있었으니,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명의 멸망 이후 복식으로 ‘華’와 ‘夷’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조선 사신단 사이에서 하나의 관례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³⁹⁾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대명의리의 존숭과 배청의식은 사행에 참여하지 않는 친지들의 송별시를 모은 『親朋驢詩』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무더운 유월에 어디로 가려는가	炎天六月欲何之
약소국의 금과 비단 해마다 바쳐야하네	弱國金繒歲有期
구련성 아래에서 지새는 밤 견디기 어려울 테니	巨耐九連城下夜
차가운 비바람 불거든 효종의 시를 생각하게나	淒風寒雨孝宗詩
- 仲儼, <內弟成仲君稷作瀋陽行詩以別之>	

매형인 仲儼이 이만수와 이진수가 심양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송별시이다. 전반부에서는 무더운 6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마

37) 『入瀋記』에는 副使·李時秀·李晩秀 등의 이름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품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8) 『入瀋記』下, 附錄, 『御製驢詩』, <廣韻>, “遺民尙感衣冠制 古壘惟聞鳥雀啾”.

39) 김민지, 「燕行錄의 衣冠 問題에 대한 認識과 表現의 變轉」,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2쪽.

다 금과 비단을 바쳐야 하는 약소국의 설움을 읊었다.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사행 경험을 토대로 구련성 아래에서 지새는 밤이 유독 견디기 어려울 테니 그때 효종의 시를 떠올리며 참으라고 한다. 구련성은 사행이 압록강을 건너 가장 먼저 도착하는 중국의 도시로, 사행원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시작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느닷없이 효종의 시를 언급한 것은 일찍이 형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던 그가 “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구련성에 진을 쳐 백족 오랑캐를 소탕한 후에 白玉京으로 돌아오고 싶다”며 자신의 소원을 시로 읊었기 때문이다.⁴⁰⁾ 결국 仲儼 역시 승명배청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당시 이전수·이만수를 둘러싼 조선 지식인의 의식도 정조의 의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준다.

3) 壯遊의 실현과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

장쾌한 놀음 이는 남아의 큰 뜻이니 壯遊自是桑蓬志
넓은 하늘을 어찌 대롱 구멍으로 엿보랴 天闊寧從小管窺
- 李海應, <東關驛和趙景裕>

1803년 三節年貢使行에 서장관 徐長輔의 자제군관으로 참여한 李海應이 東關驛에서 趙景裕의 시에 화답한 것이다.⁴¹⁾ 시에서 말한 것처럼 壯遊, 곧 ‘장하고 상쾌한 놀음’은 사내가 세상을 위해 공을 세우고자 가슴에 큰 뜻을 품고 멀리 유람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당시 선비라면 누구나 꿈꾸는 소망이었다. 이는 두보가 젊은 시절 공부를 그만 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유람한 소감을 읊은 시의 제목이 <壯遊>이고, 김인겸이 일본을 다녀온 뒤 사행체험을 8,266구의 장편 사행가사로 엮은 것이

40) 金幹, 『厚齋集』 권4, 「疏」, <辭本兼職兼陳所懷疏>, “我欲長驅十萬兵 秋風雄鎮九連城 大呼蹴踏天驕子 歌舞歸來白玉京”.

41) 이해웅, 『薊山紀程』 권2, 1803년 12월 16일. “東關亦城圯 石門獨巋然 是日爲觀日出 一行曉發 趙從事景裕 道誦遼野詩 仍用其韻”.

<일동장유가>이며, 남용익이 10년 사이에 일본(1655)과 중국(1666) 여행을 다녀온 뒤 지은 646구의 국한문 혼용 사행가사가 <壯遊歌>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으로의 여행은 ‘대룡의 구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온전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오랑캐 뜰에 예물 보낸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玉帛虜庭閱幾秋
강 다리에 비낀 석양이 이별 시름 일으키네	河橋斜日又離愁
그대 형제의 원대한 뜻을 잘 아나니	知君兄弟桑蓬志
요동 하늘 말 머리 나란히 하고 장유 이루기를	並馬遼天辦壯遊 ⁴²⁾

- 敬叔, <無題>

‘敬叔’이란 인물이 두 형제에게 바친 송별시이다. 전반부에는 아끼는 집안의 두 형제가 오랑캐에게 예물을 바치러 여행에 오르는데, 하필이면 강 위에 놓인 다리에 석양빛이 영글어 이별의 시름이 절로 일어난다고 읊는다.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두 형제의 원대한 포부를 잘 아니 사이 좋게 장유를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다. 두 형제가 지닌 원대한 뜻은 8촌형 ‘碧礪散人’이 이전수를 송별하며 지은 <送君稷北遊序>에 잘 나타난다.

그대는 일찍이 옛 것을 좋아하고 의리를 흠모하더니 젊을 때 먼 길을 떠나는구려. 渾河에 이르면 전쟁의 흔적을 묻고, 발해를 내려다보며 세상의 변천을 탄식할 것이네. 옛 자취를 찾고 기이한 인물을 만나려는 것이 그대의 뜻이니, 어찌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자들이 성곽과 무기만 보고 놀라는 것과 같겠는가? 그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⁴³⁾

이전수의 성품과 자질을 잘 아는 그는 이전수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

42)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30, 「농암입심기」 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425-426쪽.

43) 『入瀋記』下, 附錄, 「親朋贈詩」, <送君稷北遊序>, “君既好古慕義 弱冠遠遊 將臨渾河而訊戰伐之場 俯渤海而弔滄桑之變 問舊跡訪奇士 此其志矣 夫豈若織兒庸夫之 眩惑驚動於彼 所謂城郭甲兵乎哉 君其不然矣”.

를 ‘역사적 자취를 찾고 심양 땅의 기이한 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간파한다. 그런데 그의 예측은 실제로 두 형제가 심양의 상인이자 문인인 張裕昆과 만나 빈번한 교류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입심기』의 「沿道賦詠」에는 이진수가 장유곤에게 준 시 <裕昆爲其弟潘清遠請作詩以吊之遂題示二絕>, 이만수가 장유곤에게 준 시 <臨別又贈>, 두 형제가 장유곤에게 준 시 <重陽日小酌示張裕昆> · <留別裕昆>, 이만수가 장유곤의 30세 때 초상화를 본 느낌을 적은 <裕昆眞贊並序>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장유곤도 이만수가 자신의 서재 이름인 ‘書巢’에 대한 記를 청하자 써 준 <書巢記>와 두 형제가 귀국할 때 1달 간 교류의 소감을 담은 <贈李二君東歸序>를 남기고 있다. 교류의 인연은 귀국한 두 형제가 이듬해 사행 편에 장유곤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고, 장유곤도 두 형제의 시문을 長幅에 써서 보내주길 청하는 답신을 보낼 정도로⁴⁴⁾ 돈돈하게 이어진다.

한편, 송별객들은 사행을 통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도 한다.

우리 형이 고전을 좋아하고 문제도 지냈지만	吾兄好古復懷才
답답하게도 조선에서는 뜻을 펼치지 못했네	鬱鬱靑丘志未開
요동 성곽의 화표주에 말을 멈추고	華表遼城應駐馬
연나라 시장의 구슬픈 노래에 얼마나 술잔을 기울일까	悲歌燕市幾傾杯
도산의 옥과 비단은 오랑캐에게 흘러가고	塗山玉帛歸戎虜
한나라의 의관은 풀밭으로 변해 버렸겠지만	漢室衣冠變草萊
중국의 푸른 산들을 다 둘러보신 후	上國靑山看盡後
좋은 시구 주머니 가득 담고 잘 돌아오소서	滿囊詩句好歸來
	- 李旭秀, <又呈從兄>

44) 『入瀋記』下, 附錄, 「沿道賦詠」, <甲辰冬張裕昆答書>, “中秋上浣貴幫人齋到手書…不備蒙賜倭刀藥丸墨箋 俱是東國珍物 謹以拜登肅此鳴謝外…若得賢伯仲二位先生見懷之詩或前留贈之什 書於長幅 朝掛斗室 眞使蓬華生輝 永爲寒家墨寶傳之奕世”.

사촌 동생인 李旭秀(1764~1813)가 이전수에게 바친 송별시이다. 그는 규장각의 검서관을 지냈고, 동생 李耆秀와 함께 시문집인 『家山全書』를 남긴 인물이다. 首聯에서는 형 이전수가 고전을 좋아하고 문재도 뛰어난 인재지만 정작 나라에 쓰이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이는 金和南이 이전수를 ‘오랫동안 『水經』에 몰두하여 지리에 심취하고, 책장 사이에서 빠짐없이 모든 것을 꿰뚫었다.’고 평가한 것과⁴⁵⁾ 사행이 끝난 후인 34세(1792)에 이르러서야 그가 비로소 참봉이라는 벼슬을 받은 데서 확인할 수 있다.

頷聯에서는 ‘華表柱’와 ‘연나라 시장의 구슬픈 노래’를 끌고 와 병자호란의 수치를 되짚을 수 없어 형이 분명히 술잔만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견한다. ‘화표주’는 무덤 앞에 표지로 세운 두 개의 돌기둥으로, 신선이 된 요동사람 丁令威가 학으로 변신하여 고향을 찾아 화표주에 앉았다가 성곽은 그대로이지만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라며 한탄했다는⁴⁶⁾ 고사의 상징물이다. 그리고 ‘연나라 시장의 구슬픈 노래’는 연나라 태자 丹을 위해 진시황을 죽이려다 되려 죽임을 당한 검객 荊軻가 비분강개하며 불렀던 노래를 말한다.⁴⁷⁾

頸聯에서는 우임금이 도산에 제후를 불러 모았을 때 조공을 바친 나라가 萬國이나 되었다는 고사를 끌고와 지금은 이제는 조공품이 오랑캐에게 바쳐지고, 漢의 의관 제도마저 풀밭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충고한다. 그리고 尾聯에서는 조선에서 펴지 못한 文才를 발휘하여 중국 산하를 구경한 뒤 지은 아름다운 시구를 주머니에 가득 담아 오기를 축원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

45) 『入瀋記』下, 附錄, 「親朋驢詩」, <李友君稷赴瀋陽寄詩求驢語以小序答>, “子潛心於水經地志者久 於古紙錯落之中無不一見領略焉”.

46) 陶潛, 『搜神後記』卷1, <丁令威化鶴>, “丁令威 本遼東人 學道於靈虛山 後化鶴歸遼 集城門華表柱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冢壘壘 遂高上沖天而去”.

47) 司馬遷, 『史記』 권86, 「刺客列傳」, <荊軻>. “高漸離擊筑 荊軻和而歌 爲變徵之聲 士皆垂淚涕泣”.

4)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한 걱정과 무사귀환의 희구

1783년 성절겸심양문안사행의 왕복노정은 대략 약 4개월, 3,250리(1,288km)에 이른다⁴⁸⁾. 6월 13일 서울을 출발한 사행은 7월 18일에 압록강을 건넌 후 12일 뒤에 심양에 이르렀다. 연행사는 통신사처럼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고, 물길을 건너야 하는 위험도 없었다. 보통 연행사의 사행목적과 출발시기를 보면 대부분 동지겸사은사로 10월에 서울에서 출발하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1783년 성절겸심양문사행은 보통 때와 달리 한참 더운 음력 6월인 데다, 정사 이복원은 65세 고령이었다. 이미 정조가 그의 ‘병약함’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에 송별시문에는 자연스레 지인들의 근심과 우려가 더해졌다.

무더운 날씨에 먼 길을 떠나시면 노인의 건강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며, 말을 타고 다니시는 수고로움을 생각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대감님의 건강과 행차 준비는 잘 되어가시는지요? 과연 13일에 출발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⁴⁹⁾

외가쪽 동생인 申大羽가 이만수·이전수 두 형제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그는 자가 儀夫, 호가 宛丘로 1784년에 음보로 繕工監役에 기용되었다. 『입심기』의 초고가 1783년에 작성되고 1786년에 탈고를 하다 보니 그 편지글의 제목이 원래는 <申大羽書>에서 <申監役書>로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척마저 염려할 정도로 이복원의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건강한 지 안부를 여쭙는 내용이 편지의 첫머리를 장식할 수밖에

48) 『入瀋記』 하권의 「일기」는 “○월 ○일+날씨+오늘 몇 리를 갔다.”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1783년 6월 13일부터 7월 30일 심양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을 계산하면 편도로 총 1625리가 나온다.

49) 『入瀋記』下, 附錄, 「親朋驢詩」, <申監役書>, “劇暑遠於恐 有妨於老人 攝愼之節 鞍馬之勞 又奉爲之憂慮不已 不審即日侍餘 起居珍重行旆 果以十三啓發否”.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고령의 이복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었다.

평소에도 열병 잘 걸렸었는데	居猶病熱炎
그대 심양 간다니 가련할 뿐이네	念子瀋陽迺
돌아오는 날 상쾌한 바람 마주하며	歸日對清揚
마음껏 북방 이야기 나누세나	盡意談幽朔

- 洛老, <贈別成仲>

‘洛老’가 사행을 떠나는 이만수에게 바친 송별시이다. 전반부에는 열병에 잘 걸리던 이전수가 사행을 떠남을 가련하게 여기는 한편, 후반부에서는 시원한 날 돌아와 사행담이나 실컷 나누자며 용기를 북돋우는 위로의 말을 건넨다. 이에 대해 이전수의 형인 이시수도 차운시를 남긴다. 자신은 원래 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洛老가 운을 띄워 주었기에 짓는 다면서 ‘(洛老의 시) 스무 글자가 천금과 같으니 /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며 돌아오시게’⁵⁰⁾라며 두 동생이 더위를 잘 견딘 후 무사귀환하기를 기원한다.

이밖에 사신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어려운 부탁을 하기도 한다.

陶隱居가 지은 『眞誥』와 『登眞隱訣』 두 책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천고에 드문 기이한 책으로, 저는 10여 년 동안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늘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신이 갈 때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보았으나, 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너무 괴벽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들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부탁을 드리니, 혹시 관심을 가져주실지 모르겠습니다.⁵¹⁾

50) 『入瀋記』下, 附錄, 「親朋驢詩」, <無題>, “我本不欲詩 洛老起餘哉 廿字抵千金 一日一讀來”.

51) 『入瀋記』下, 附錄, 「親朋驢詩」, <申監役書>, “陶隱居所撰眞誥登眞隱訣二書 曾或聞見否 此是千古絕奇之書 自十餘年來寤寐而求 每值節使 便往往不辟苟且而求之

신대우가 자신이 구하고자 10년이나 애썼던 陶弘景의 『眞誥』와 『登眞隱訣』 두 책을 구해주기를 두 형제에게 부탁하고 있다. 도홍경은 남조 梁나라의 隱士로 도교·불교·천문학에 조예가 깊은 문인이다.⁵²⁾ 『진고』는 晉의 哀帝 때 楊羲·許謐 등이 지은 것을 도홍경이 주석하여 20권으로 편집한 것이고, 『등진은결』은 得仙의 비결을 설명한 책으로 『黃庭經』과 『大洞眞經』을 주석하여 도홍경이 편찬한 것으로 모두 도교경전이다.⁵³⁾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도교서적들을 중국 사행에 참여하는 사행원들에게 부탁하여 구해 읽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입심기』 소재 신시에는 적임자 발탁에 대한 칭송과 사행 참여의 자부심, 대명여리의 존송과 배청의식의 표출, 壯遊의 실현과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한 걱정과 무사귀환의 희구 등을 내용상의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후기의 연행록인 『입심기』에 수록된 신시의 창작배경과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심기』의 창작배경이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혼선을 빚었던, 『입심기』가 산출될 수 있었던 저자와 사행연대에 대해 살폈다. 『입심기』는 1723년에 사행을 참여한 이의만의 기록이 아니라 1783년 사행에 참여한 정사 이복원의 둘째 아들인 이만수와 조카인 이전수가 공동으로

不惟其書無以得 並與其有無消息而不能探詳 苟非吾之太僻 亦見人之無心 茲復欲奉煩於座右 未知倘或留念否”.

52) 연세대 중국문화사전편역실, 『중국문화사전Ⅱ 작가편』, 다민, 1994, 91-92쪽.

53) 김상태, 「수진도(修真圖)에 관한 연구-존사와 내단 경로를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박사학위, 2023, 10쪽과 43쪽.

기록한 사행록이되 주저자는 이전수였다. 둘째, 신시의 창작배경을 살폈다. 조선은 건륭황제의 심양 유람과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을 심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복원이 정사에 선발되고 둘째 아들인 이만수와 조카인 이전수도 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연안 이씨 집안은 조상 때부터 중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후손들도 대를 이어 중국 사행길에 올랐는데, 1783년에 다시 성절겸심양문안사 정사가 탄생하고 임금에게 신시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정조가 내린 신시에 세 사신과 함께 이학원·이전수가 시를 짓고, 친지들도 그들을 위해 송별시문을 남기게 된 결과 「어제신시」와 「친봉신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다음은 『입심기』의 내용상의 특징이다. 첫째, 적임자 발탁에 대한 칭송과 사행 참여의 자부심이다. 정조는 신시에서 중요한 외교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는 자신의 생각을 잘 아는 이복원 뿐이라며 최고의 신뢰를 보였다. 자제군관으로 참여한 이만수·이전수도 송별객으로부터 뛰어난 학식과 文才로 사행의 적임자로 칭송을 받았다. 둘째, 대명여리의 존숭과 배청의식의 표출이다. 심양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왕세자는 물론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산 고통의 공간이었기에 정조를 비롯한 송별객들은 한결같이 숭명배청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 장유의 실현과 능력 발휘에 대한 기대이다. ‘장유’는 당시 선비라면 누구나 꿈꾸는 소망으로, 송별객들은 이전수, 이만수 두형제가 사행을 통해 장유를 이루고 자신의 능력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넷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한 걱정과 무사귀환의 회구이다. 1783년 성절겸심양문사행은 보통 때와 달리 한참 더운 음력 6월로 정조를 비롯한 송별객들의 시문에는 이들이 더위를 잘 견딘 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비록 본 연구가 『입심기』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신시만을 대상으로 살핀 한계가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자료

『國朝文科榜目』

金昌集, 『夢窩集』

金榦, 『厚齋集』

『論語』

陶潛, 『搜神後記』

『正祖實錄』

『清實錄』

徐澄修, 『明阜全集』

司馬遷, 『史記』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海應, 『薊山紀程』

『通文館志』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 단행본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서인범, 『연행사의 길을 가다』, 한길사, 2014.

실학박물관 편, 『燕行의 문화사』, 경인문화사, 2012.

연세대 중국문학사전편역실, 『중국문학사전Ⅱ 작가편』, 다민, 1994.

임기중 편, 『燕行錄全集』, 권30,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張傑, 『韓國史料三種興盛京滿族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9.

조규익 · 이성훈 · 전일우 · 정영문 편저, 『(eBook) 연행록 연구총서』, 학고방, 2019.

弘華文 편, 『燕行錄全編』, 제2집,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2.

3. 논문

강창구, 「이백 송별시의 기능고」, 『인문학연구』 47권,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2014, 125-149쪽.

김민지, 「燕行錄의 衣冠 問題에 대한 認識과 表現의 變轉」,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상태, 「수진도(修真圖)에 관한 연구-존사와 내단 경로를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박수밀, 「병자호란의 상흔과 청음 김상헌의 심양 억류 체험 고찰」, 『한국문학과예술』 31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291-317쪽.

백종기, 「사대 교린외교의 지정학적 및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 10권,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81-118쪽.

윤경희, 「연행과 자제군관」, 『비평문학』 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40-55쪽.

이도훈, 「履園 李晩秀의 生涯와 散文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朱玉, 「朝鮮文獻 入瀋記 研究」, 遼寧大學 歷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10.

韓梅, 「韓國古代文人眼中的中國-『朝天錄』, 『朝京日錄』, 『入瀋記』爲中心」, 『東岳論叢』9號, 文學研究, 2010, 51-54쪽.

_____, 「〈入瀋記〉에 나타난 淸人 형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9집, 한중인문학회, 2013, 337-357쪽.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의 贐章 연구-「遼窩府院君日本使行時贐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283-308쪽.

허태구, 「정조대 대청 외교와 대명외리의 공존, 그 맥락과 의미」, 『지역과 역사』 47권, 부경역사연구소, 2020, 141-178쪽.

<Abstract>

A Study on the Farewell Poems Included in *Ipsimgi*

Chae, U-Ja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reative context and thematic features of the farewell poems documented in *Ipsimgi*, a Yeonhaegrok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begin with, regarding the composition background of *Ipsimgi*: First, this research clarifies previous scholarly confusion concerning the authorship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mission. Contrary to earlier assumptions that attributed the work to Lee Eui-man, a member of the 1723 envoy, *Ipsimgi* was actually co-authored in 1783 by Lee Man-soo and Lee Jeon-soo, the second son and nephew of Chief Envoy Lee Bok-won, respectively. Among them, Lee Jeon-soo served as the principal writer. Second, the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surrounding the creation of the farewell poems. The Joseon court dispatched a diplomatic mission to celebrate the Qianlong Emperor's inspection tour of Shenyang and the Emperor's Longevity Festival. Lee Bok-won was appointed as chief envoy, and his son Lee Man-soo and nephew Lee Jeon-soo were permitted to accompany the delegation. The Yean Lee clan had long maintained close ties with China, and in 1783, they once again produced the chief envoy for the dual occasion. In recognition, King

* Pusan National University.

Jeongjo composed royal farewell poems. In response, the three envoys, along with Lee Hak-won and Lee Jeon-soo, composed matching-rhyme poems, and friends and relatives also contributed farewell verses. These collectively formed the collections titled “Royal Farewell Poems” and “Farewell Poems by Friends and Family.”

As for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Ipsingi*: To begin with, the text reflects praise for the envoys and a profound sense of pride in participating in the diplomatic mission. In the royal farewell poem, King Jeongjo highlights that only Lee Bok-won, who thoroughly understood the monarch’s will, was worthy of shouldering such a diplomatic duty—an expression of absolute trust. Meanwhile, Lee Man-soo and Lee Jeon-soo were lauded by their well-wishers for their exceptional scholarship and literary accomplishments, and were hailed as ideal representatives of the mission. In addition, the poems reveal a reverence for the moral orthodoxy of the former Ming dynasty and an undercurrent of anti-Qing sentiment. Given that Shenyang had been the site where the crown prince and common people of Joseon suffered captivity after the Bingzi Invasion, both the royal and farewell poems consistently express a strong ideological stance of “honoring the Ming and rejecting the Qing”.

Moreover, the poems express the aspiration to undertake a Jangyu (Grand Journey) and demonstrate one’s intellectual talents. Such a journey was a shared dream among the Joseon literati, and the send-off poems conveyed hope that the brothers Lee Jeon-soo and Lee Man-soo would fulfill this ideal during the diplomatic trip, fully showcasing their capabilities.

Finally, the writings also express concern over the extreme summer heat and offer prayers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on. The 1783 envoy journey took place during an exceptionally hot sixth lunar month, and the poems by King Jeongjo and the senders include sincere wishes that the delegation would overcome the oppressive heat and return home safely.

Key Words: Yeonhaegrok, Shenyang, farewell poetry, *Ipsingi*, Literary Correspondence in Poetry

■ 논문접수 : 2025년 7월 28일

■ 심사완료 : 2025년 8월 12일

■ 게재확정 : 2025년 8월 12일

